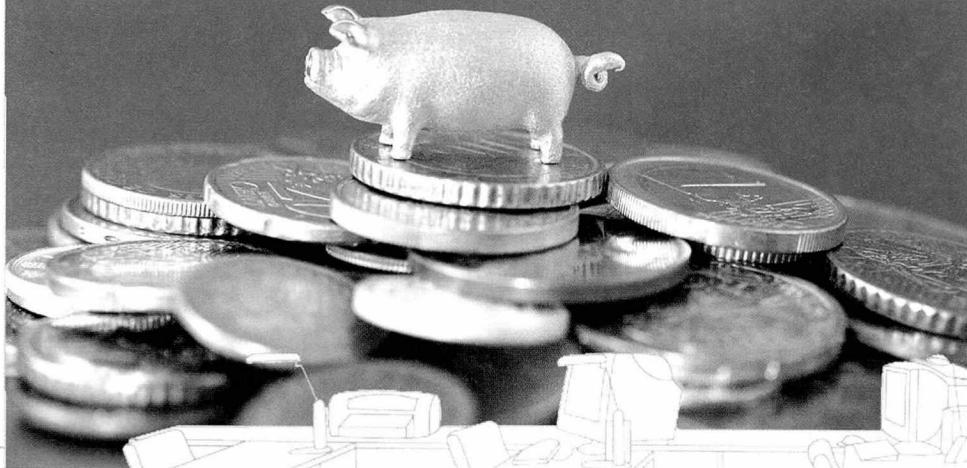


# 2007 황금돼지를 잡아라!

2007년이 시작되었다. '600년마다 돌아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화이트 데이'나 '빼빼로 데이'처럼 상업성에 물든 개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2007년이 모든 벤처기업에게 유형, 무형의 황금을 선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재미로 보는 2007 벤처 토정비결>과 <벤처기업 4개사의 2007 비전>을 게재한다. 환율하락과 한미 FTA, 북핵 등으로 어지러워도 자유로운 상상과 활동을 기반으로 오래도록 '벤처의 르네상스'로 기억될 2007년을 기대한다.



2007 전망 『벤처』 토정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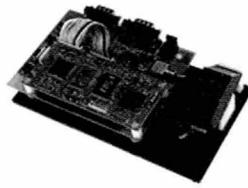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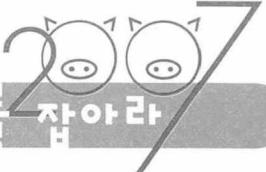
2007년은 황금돼지해라고들 난리다. 정해년에 태어나면 재물운이 많아 다복하게 산다고 임신붐까지 일고 있는 것. 회사로 치면 사업부서를 늘리거나 신규 투자를 노려볼 만한 해이다. 일반적으로 돼지 해(亥)는 십이간지 상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붉은 돼지 해인 정해년(丁亥年)은 60년 만에 돌아온다. 정해년을 '붉은' 돼지해라고 부르는 것은 오행에서 정(丁)이 불을 뜻하기 때문. 황금돼지해는 이 붉은 돼지 해 가운데서도 음양오행을 더 따져 600년 만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 믿거나 ~말거나~ 믿고 싶은 자만 믿을 지어다.

벤처업계의 2007년 전망을 봐달라고 하니 보긴 하겠으나, 인간의 길흉화복은 다 노력 하는 데 달려 있음을 명심하라. 근본적으로 돼지는 天福을 뜻한다. 잘 되는 해이니 엄살을 부리지 말고 매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욕심은 화를 부르니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돼지 저금통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7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의 건강도지수 (SBHI)가 85.5로 나왔다. 그러나, 벤처·이노비즈 등 혁신형 기업은 101.2로 기준치(100)를 넘었으며 일반기업은 83.5로 기준치를 크게 밀돌았다.

또 바이오인식포럼의 '국내 바이오인식 시장 현황'을 보면 지난해 364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는데 올해는 628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이런 성장세는 200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바이오 산업계가 해외 시장 판로 개척에 주력해 수출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판로가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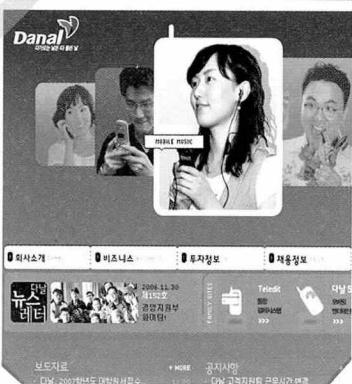
이렇듯 IT나 BT업계의 전망은 전체 산업계의 전망보다는 희망적이다. 명심해야 할 것은 돼지 해이니 재물운이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붉은 돼지의 기운을 받아 부지런히 새끼를 늘려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CORE PRODUCTS

바이오인식 대표기업  
(주)니트젠 배영훈 대표

## 니트젠



휴대폰 결제 대표기업  
(주)다날 박성찬 대표

## 다날

콘텐츠와 휴대폰 결제  
라는 캐시카우를 바탕  
으로 글로벌기업 성장  
계획

니트젠의 2006년은 글로벌기업을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바이오인식 산업발전의 결실을 맺은 해였다. 2007년부터 바이오인식여권 즉 e-Passport 발급을 기점으로 발생될 바이오인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비하여 바이오인식 관련 국가 공공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SI성 대형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대형기업의 바이오인식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전략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향후 2년간 고객지원센터를 동남아부터 전세계 8개 지역에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적으로는 지문 관련 세계 표준화를 주도하고, 모조지문방지기술을 비롯하여, 제반 embedded기술과 첨단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IBG, FVC 등 각종 국제 경연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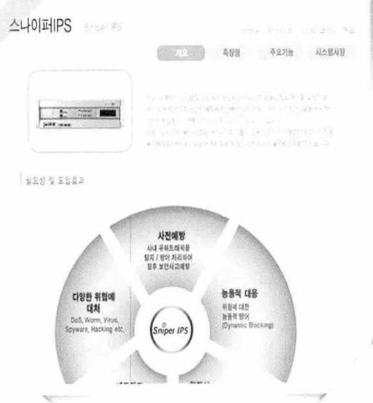
또한 3년 이내에 IPO 등록을 목표로 하고, 2007년에는 이를 위해 기간투자 유치와 재무환경개선 및 투명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과 각종 복리후생정책을 도입하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종업원 만족도를 제고시켜, 활기찬 회사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니트젠은 창립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경영상황을 크게 반전시키고, 전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2007년에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2010년 안에 세계 5대 바이오인식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회사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50여 임직원은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다날', 국내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콘텐츠와 휴대폰 결제라는 2가지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설 계획이다. 지난 2000년 7월 세계 최초로 휴대폰 결제 솔루션 개발에 성공한 다날은 지금까지 국내 휴대폰 결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이동통신과 커머스의 결합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국내 온라인

유료화의 일등공신으로 평가 받은 휴대폰 결제는 2007년 인터넷 접근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영역 및 실물거래 확대 △e러닝 소액결제 증가 △대작게임 등장 등으로 인해 엄청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은 무선인터넷 콘텐츠 재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동통신사에서도 △플랫폼 컨버전스 △인포메이션

콘텐츠 △사용자 편의 등에 초점을 맞춰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대중화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는 콘텐츠 최고 기업인 다날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2006년 중국 전역의 차이나모바일 고객 2억 2240만 명이 휴대폰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한 바 있는 다날은 중국 뿐만 아니라 2003년 선보인 휴대폰결제를 시작한 대만에서도 월 거래액이 매월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만 6개 이동통신사 및 중국 차이나모바일과의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CDMA, GSM의 모든 이동통신 시스템과 선불, 후불 등 모든 과금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 됐다. 국내 유, 무선인터넷 시장을 주도해온 다날은 2007년 해외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 정보보호 대표기업  
(주)원스테크넷 김대연 대표

## 원스테크넷

### '2007년 원스테크넷의 황금돼지는 '사업영역 확대'

2007년 정해년(丁亥年),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풍성한 새해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해 사업을 시작하지만 올해는 원스테크넷에 특히 더 풍성한 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지난 한해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정보보호업계에 희비가 엇갈리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욱 더 잘하고,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일부 기업은 정리가 되는 이른바 '정보보호시장 정리의 해'였기 때문이다. 원스테크넷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 왔다.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우리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신제품 출시로 시장 영역을 넓히고, 핵심제품 기반의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개발인력을 충원했고, 현재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새로 출시할 제품은 10기가 비트급 침입방지시스템(IPS), 웹해킹을 차단하는 웹방화벽(WAF), 비정상트래픽 감지/제어 시스템 등 시장의 요구에 부합한 핵심 제품이다. 원스테크넷은 또한 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지속적인

인수합병(M&A) 검토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새로운 아이템개발과  
지속적인 인수합병  
(M&A) 검토



| 그룹웨어 대표기업  
(주)핸디소프트 정영택 대표

## 핸디소프트

### 핸디소프트가 꿈꾸는 2007년 황금돼지꿈!!

70~80년대에는 공업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면, 지금 그리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IT산업에 달려있다. IT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최근 몇 년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IT산업은 타 산업의 생산성 증대와 고도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도 무한하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 IT는 경쟁력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7년이 주는 의미는 핸디소프트에게도 크다. 단순히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 아닌, 진정한 IT 강국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SW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TOP 10', '매출확대',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서는 그룹웨어 시장 점유율 1위, BPM

시장 점유율 1위를 입증하고 있어 그 가능성은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위해 핸디소프트는 경영혁신, 끊임없는 제품 개발, 이익창출의 노력 등 IT산업의 발전방향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IT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2007년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

2007년은 황금돼지의 해라고 하여 모두들 행운이 올 것이라는 예감으로 새해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IT산업 또한 국가지원 확대 정책 등 밝은 시장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핸디소프트는 언제나 변함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세계 최고의 SW기업을 향해 전진할 것이며, 2007년 IT산업의 황금돼지는 핸디소프트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